

## 한라산 구상나무(*Abies koreana* E.H. Wilson)의 천연묘 기준화 방안 고찰

최임준1), 이종원2), 강신호3)\*

1)세명대학교 대학원 의약생명과학과, 2)세명대학교 대학원 한방식품영양학과, 3)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Method of Wild Seedlings of *Abies koreana* E.H. Wilson on Mt. Hallasan

Im Jun Choi1), Jong-Won Lee2), Shin-Ho Kang3)\*

1)Dept. of Medical Bioscience, Semyung Univ., 2)Dept. of Oriental Medical Food & Nutrition, Semyung Univ., 3)School of Industrial Bio-Pharmaceutical Science, Semyung Univ.

#### ABSTRACT

전나무속(*Abies* Miller, 1754)은 지구상에서 북반구를 중심으로 50여 종이 현존하고 있다. 전나무속은 주로 높은 고도의 산지 또는 수목 한계선 주변에 자연적 분포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전나무(*A. holophylla*), 분비나무(*A. nephrolepis*) 및 구상나무(*A. koreana*), 총 3종이 자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자생하는 3종의 경우도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특산식물인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IUCN Redlist 상의 ‘Threatened species’ category 중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상나무 어린 나무(치수)의 수가 급격히 줄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나무의 어린 나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선행연구에서도 어린 나무의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상나무 등 국내 자생하는 구상나무 천연묘의 기준을 정립하여 추후 진행되는 구상나무 등 전나무속 어린 나무에 관한 연구에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내·외 소나무과 어린나무에 관한 논문을 정리 및 분석하였고, 구상나무 어린나무가 자생하는 숲의 구조(제주조릿대 등) 및 환경(암석노출도 등)에 적절한 높이와 아린흔의 갯수를 참고로 기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준안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구상나무 어린나무 3,138개체의 높이 및 아린흔 갯수를 토대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우선, 높이에 대한 기준은 1년생묘(당해묘, 5cm 미만)-유묘(5cm~10cm 미만)-성묘(대묘, 10cm~30cm 미만)-치수(30cm~100cm 미만) cf. 전생치수-유목(100cm 이상) 5단계로 구분되었다. 아린흔 갯수에 대한 기준도 또한 1년생묘(1개)-유묘(2개~6개)-성묘(대묘, 7개~15개)-치수(16개~20개) cf. 전생치수-유목(21개 이상) 5단계로 구분되었다.

**주요어:** 구상나무, 천연묘, 높이, 아린흔, 기준화

\*(Corresponding author) E-mail: idec5974@semyung.ac.kr Tel: +82-43-649-1412